

세종문화회 소식

2012 년 3 월 1 일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를 미국 주류문화 안에 뿌리내려 미국의 문화를 더욱 다향하게 만들어 한국인 후세들과 타인종들이 더욱 풍요한 문화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그동안 세종 음악경연대회, 세종 작문경연대회, 세종 작곡경연대회, 영어로 시조 쓰기 교육 세미나등을 전국적으로 전개 해 오고있는 세종문화회의 최근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12 년 세종문화회 기금 모금 만찬회를 2 월 25 일 시카고 근교의 Drury Lane 에서 가져, 허철 시카고 총영사님의 기조 연설과 봉산탈춤의 손병만 이수자의 봉산탈춤, 도살풀이등의 공연과 세종음악경연대회 수상자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습니다.

MC-TV News 취재 동영상 보기 - 링크: <http://sejongsociety.org/videos/20120225/index.htm>

제 8 회 세종 음악경연대회를 지난 12 월에 성황리에 마치고 2012 년 1 월 8 일 시카고 근교 Evanston 에 위치한 Northwestern 대학의 Lutkin Recital Hall 에서 수상자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 서양 음악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새로 작곡한 태평가, 양산도, 뱃노래, 군밤타령, 각설이 타령, 진도 아리랑, 옹헤야, 해가 서산에 저물어도, 음양 등의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경연대회 지정곡들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트나, 프로코피에브의 피아노 소나타 6 번, 카츠티리안의 바이올린 콘체르트등의 서양곡과 어우러 연주되어 한국 음률이 들어간 곡들이 어느 곳에서나 서양곡들과 같이 연주 되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주회였습니다. 지난 8 년동안의 세종 음악경연대회 수상자 연주회 동영상들이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 있으며 .(www.sejongsociety.org/videos)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지정곡의 music score 를 원하시면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음악 경연대회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음악 교사들에게는 악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www.SejongCulturalSociety.org/music/current)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제 7 회 세종 작문경연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2012 년 3 월 31 일 마감). 작문경연대회는 영어 수필과 영어 시조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수필 부분은 초중등부와 고등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초중등부문에서는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어로 번역된 7 개의 한국의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 심청전, 흥부 놀부, 나뭇군과 선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등등)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주어진 주제로 수필을 써야 하며, 고등부는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황순원의 "학" 영문 번역판을 읽고 남북 분단과 관련된 주어진 주제를 갖고 수필을 써야 합니다. 이 경연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전래 동화및 한국 문학을 한국인 후세는 물론,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소개 시키며, 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후에 작가가 된 후에도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응모는 작년과는 달리,

응모용지를 download 받거나 작품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는 번거로움을 제거 하여 금년부터는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form 을 기입하고 작품을 upload 하도록 했습니다.
(www.sejongculturalsociety.org/writing/current)

시조 경연 부문은 하바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및 David McCann 교수와 공동 협조하여 진행되며 pre-college 학생 모두가 참가하는 한 부문으로 주제는 자유이며 삼장으로 구성되는 한국 고유의 시조 형태만 갖추면 됩니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시조 쓰기를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시조 입문, 시조 역사, 황진이 시조 풀이 등의 영어로 시조 쓰기에 관한 하바드 대학 David McCann 교수의 세 편의 강의 동영상과 여러 가지 시조 교육 자료들이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 있어 시조를 처음 접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시조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석줄로 쓰는 간단한 한국 고유의 시조 형식을 빌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기 표현의 도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조 교육을 더 많은 교사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UIC 의 English Department 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위한 시조 워크샵과 시조 세미나 외에도, LA 에 위치하고 전국의 교사들을 상대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 하고 있는 Korean Academy for Educators (KAPE) 와 공동 협력하여 미국 전국에서 개최되는 한국 문화 세미나 기간중에 시조 교육을 정식 수업으로 포함하여 전국의 미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시조 쓰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제 3 회 세종 국제 작곡 경연대회**도 진행 중입니다 (6 월 30 일 마감). "Sejong Prize" 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있는 이 국제 작곡 대회는 세계의 기성 전문 작곡가 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의 삼중주 곡이나 그 중 두 악기만을 사용하는 이중주 곡을 작곡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곡의 수준은 기성 전문 연주자들이 대중을 위한 일반 음악회 에서 연주 할 수 있는 격 높은 곡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연주시간 - 12 분 미만). 일등상으로는 천오백불의 상금 외에 세계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링컨 트리오 (www.LincolnTrio.com) 가 수상곡을 시카고의 WFMT Classical Music Radio Station 에서 연주하는 부상이 주어집니다. 세종문화회는 수상곡들을 모아 CD 를 제작하고 연주회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연주가의 수준에 맞는 곡을 요구하는 현재 진행중의 제 3 회 작곡경연대회와는 달리, 지난 제 1 회 및 제 2 회 작곡경연대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연주할 수준의 곡을 작곡하도록 요구 했습니다. 김미숙 교수 (현재 Wheaton College 작곡과 교수이며 Naperville 거주) 이 작곡한 "옹헤야의 기쁨" (Joy of Ong-he-ya)은 매년 세종 음악경연대회에서 지정곡으로 쓰여 연주 되고 있으며, Chicago 의 WFMT Radio 방송, Music In The Loft 의 Young Award Winner's Series 에서 연주되는 등, 미국 여러 곳에서 학생들 사이에 연주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률이 무엇인지를 타민족 작곡가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아리랑, 새야 새야 파랑새야, 새타령, 청성곡, 상령산, 몽금포 타령, 참부타령, 시조창 청산리 등 10 개의 한국의 곡들을 선택하여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아, 곡의 연주를 듣고, 악보를 보고 관련된 가사를 읽고, 곡에 관한 음악적인 해설을 읽어, 한국의 음률을 포함하는 곡을 작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한국의 전통음악 음률에 대해 친숙해져서 앞으로도 많은 타민족의 작곡가들이 한국적인 요소가 포함된 현대곡들을 작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www.sejongculturalsociety.org/composition/current)

제 1 회 및 2 회 세종 국제 작곡경연대회에서는 Pacific Rim Music Festival 의 director 이며 현재 UC Santa Cruz 작곡과 교수로 계시는 김희경 교수께서 작곡경연대회 위원장으로 수고 해 주셨으며, 지금 진행중인 제 3 회 대회에는 University of Chicago 의 Schulamit Ran 교수께서 작곡경연대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고 계시며, 또 김희경 교수님, 연세대의 이찬해 교수님, 예술 종합대학의 이건영 교수님, 독일 Bremen 대학의 Younghi Pagh-Paan 교수님등의 여러분이 작곡경연대회 위원으로 수고 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이나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한국인 작곡가들께서 이 작곡경연대회에 많이 참여 하셔서 아름다운 한국의 음률을 서양 음악주류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경연대회의 자세한 요강및 한국의 전통음악 해설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 있습니다. (www.sejongculturalsociety.org/composition/current))

세종문화회 활동및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나 세종문화회 후원 (세종문화회는 501 (c) 3 비영리 단체입니다.)에 관한 문의는 sejong@sejongculturalsociety.org 로 이메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

회장: 주 영혜,

부회장: 오 유심,

재무: 박 숙,

서기: 강 유명,

사무총장:박 종희,

이사장 김 호범 드림.

www.SejongCulturalSociety.org

www.SejongSociety.org

이메일: sejong@sejongculturalsociety.org